

## 동아시아 서복콘텐츠와 스토리텔링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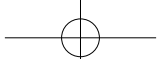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이창식\*\*

– 차례 –

1. 머리말
2. 동아시아 서복전승의 가치와 서사맥락화
  - 2.1. 중국의 서복전승
  - 2.2. 일본의 서복전승
  - 2.3. 한국의 서복전승
  - 2.4. 한중일 서복전승의 인문학적 복원
3. 서복콘텐츠의 팩션형 OSMU와 스토리텔링 방향
4. 맺음말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세명대학교 교수, chang-0715@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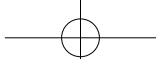
## [국문초록]

서복 스토리텔링의 원리는 중국 남부, 일본 구주, 한반도의 전통사회에 이미 널리 보급되어 실행해온 이야기 구연전통에서 시사 받을 수 있고 동아시아의 연대 가능성이 열려 있다. 고대 인물로 구연행위에 등장하는 서복(徐福)/서불(徐市)전승의 사례로 살펴 본 바 그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문화콘텐츠 측면에서 동아시아가 서로 공통된 것에 감동받고 공유점에 열광하는 것으로 이루어 보아, 공감하는 정서가 있고 서복을 통해 가치 창조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서복 화두는 한중일 껍선형 소통 전승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글에서는 서불(徐市)로 썼지만, 서복관 등과 발음 공유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서복(徐福)으로 쓰고 세 나라 균형 있게 다루었다. 서복 자체는 장수와 진시황 불로초 전승과 함께 널리 알려져 고대 교류(交流)의 신비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복은 실제 자취와 행방은 도교의 신성성에 쌓여 문헌에는 등장하나 실체가 구체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 당시 중국 해안,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는 매력적인 장소성이 존재하고 있다.

서복의 캐릭터, 동아시아 서복 서사에 대한 최초 스토리텔링 창작, 한중일 관련 문화콘텐츠산업 등을 위해 앞의 구비적 장소성, 해양 장수 탐색로에 대한 가치가 의미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을 강조해 보았다. 동아시아 공유 인문의 차원에서 서복의 존재양상은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쓰임새가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동아시아 문화원형사업은 이야기형과 예술형 소재의 상상·감동, 놀이형과 경관생태형 소재의 역동·몰입이라는 카테고리에 기반한다. 이 글에서는 서복전승을 통해 정체성과 교류성을 시놉시스형 스토리텔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해 보았다.

**주제어:** 서복, 동아시아, 서복전승, 스토리텔링, 불로초, 교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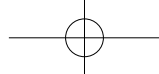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 1. 머리말

‘이야기’ 스토리텔링에 의해 놀이, 감정, 색깔, 말투, 재미에서 더 나아가 이야기 속에 녹아있는 정서와 느낌의 유전자까지 확산되어 재창조되고 있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가 가공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실제적 적용 방법이면서 서사양식을 생성하는 이론까지 탐구하는 특징을 지닌다. ‘스토리 <story>+텔링 (telling)’ 곧 이야기와 말의 진행형으로 수요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을 생생하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공감력 있게 말하는 행위기술의 총체이다. 이때 이야기는 특정 부류를 타깃으로 하여 공감을 극대화하며 전달은 청자의 호기심을 끌며 그 방향은 다면성(多面性)을 보인다. 재미있고 극적 이야기 방식으로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의 당위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스토리텔링의 원리는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사회에 이미 널리 보급되어 실행해온 이야기 구연전통에서 시사 받을 수 있다. 고대 인물로 구연행위에 등장하는 서복(徐福)/서불(徐市)의 사례로 살핀다. 소박하게 말하면 동아시아는 서로 공통된 것에 감동받고 공통된 것에 나름 열광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정서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서복 화두는 한중일 팩션형 소통 전승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글에서는 서불(徐市)로 썼지만, 서북학회와 서북관, 서북프로젝트 등과 발음의 공유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서복(徐福)’으로 통칭하여 쓴다. 서복 자체는 장수와 불로초 전승과 함께 널리 알려져 고대 교류(交流)의 신비감과 신성성을 드러내고 있다. 서복이 남긴 동아시아 발자취는 도교적 신화성에 싸여 문헌에는 등장하나 실체가 구체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 당시 중국, 한반도와 일본열도에는 매력적인 장소성 분포가 확인되고 있다. 인물교류의 스토리텔링으로 다룰 적절한 소스라고 본다.

한국에서 서복전승은 진시황의 불로초(不老草)<sup>1</sup> 이야기와 함께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행적과 자취는 여전히 신비감에 가려 실체가 불가사의한 일면을 지닌다. 서복의 신화적 인물에 대한 논의 이전에 서복 관련 전승물을 통

1 현용준 외, 『제주도전설지』, 제주도, 1985, 104-10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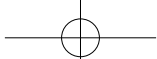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해 아시아 고대 교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sup>2</sup> 서복전승의 출발과 이동은 알려진 대로 중국 용구시(龍口市) 등, 한국의 제주도와 남해군 등, 일본의 사가현, 옹야현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인문학적 검증을 고려하여 서복전승에 대한 핵심서사를 읽어야 한다. 기존 서복의 연구는 실증적 연구보다는 서복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지역학 방식이 많이 나타나며, 주로 서복 연계 전파와 교류 전승의 문화자원화 영역에서 관심이 많은 편이다.<sup>3</sup> 그렇다고 한중일 공동번영과 상호소통을 이해하는 과제로 다루지도 못한 경향을 살필 수 있다.

서복전승은 제단(祭壇), 제장과 문헌 등 구비유적에 대한 사실(fact)과 이를 뒷받침하는 신화의 허구(fiction)를 통합하여 보는 팩션(faction) 담론인 셈이다. 서복전승의 구술상관으로 존재하는 물적 증거와 장소성(場所性) 징표라는 사실에 대한 분석을 1차적으로 하면서 2차적으로 서사와 의례의 아이콘 내포성에 대한 가치를 탐색하고, 이를 3차적으로 한중일 스토리텔링 활성화<sup>4</sup>하는 방안까지 논의를 확장한다. 대상에 대한 사실에만 매달려 해결할 수 없고, 문화적 개연성을 고려하여 인문학적 상상력<sup>5</sup>도 보태야 새로운 원형, 전형(典型), 변형을 발견하게 된다.

## 2. 동아시아 서복전승의 가치와 서사맥락화

### 2.1. 중국의 서복전승

- 
- 2 이창식, 「서불설화의 동아시아적 성격」, 『어문학』 88집, 한국어문학회, 2005, 235-251면.  
 3 이윤선, 「한국 서복전설의 현황과 관광자원화 방향」, 『도서문화』 30집, 도서문화연구원, 2007, 131-160면.  
 4 이창식, 「서복전승의 정체성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동아시아고대학』 12호, 동아시아고대학회, 2005, 53-86면.  
 5 이창식, 「학제간 융합콘텐츠와 스토리텔링마케팅」, 『인문학적 상상력과 융합콘텐츠』, 글누림, 2015, 112-113면, 175면; 최시한, 『스토리텔링 어떻게 할 것인가』, 문학과학사, 2015, 34-45면.



서복은 사마천이 쓴 『사기』에 네 군데에 실존인물로 나온다. 진시황의 개인적 영생에 대한 집착과 이를 달성하려는 역할이 서복이라는 것이다. 서복은 역사적 인물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다. 그의 삶과 행적에 대한 묘사한 기재가 적다. 그는 시황제의 사왕자로서 충현 후손 84대 응후 원후 아들이다. 또 유학을 공부하고 인도에서 칠년 동안 불교를 공부하였다. 아울러 진의 방사(方士) 노릇과 기도사, 점성술사, 약제사 등 역할도 하였다.<sup>6</sup> 서복은 천문지리에 통달한 방사이다. 시황제의 지시로 감유현에서 배를 만드는 조선공방을 차렸고 동도행의 선단을 구성하여 출항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던 인물이다.

그는 떠나기 전에 “마을에 가서 친인척들과 집안사람과 어울린 자리에서 그 자신이 진시황의 지시를 받들어 선약을 구하러 떠난다. 자신이 선약 구하지 못하면 돌아올 수 없다. 실패하면 시황제가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자신과 관계 있는 서씨성 무리는 멸문지화를 할 것이다. 서씨성 무리는 고향을 벗어나 서씨성을 입 밖에 내지 마라”고 전하였다. 이 얘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서씨촌을 벗어나 서씨성을 입에 올리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서복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연운항(連雲港)시가 널리 알려져 있다.<sup>8</sup>

다음 사마천 『사기』에 등장한 인물인데 고사적 인물로 전하게 되었다. 성씨촌, 출항지, 도래지 등 여러 곳에 희미하게 장소 이미지 남아 있다. 동아시아의 문화 전파자 또는 해외문화 전달자로서 평화의 분신처럼 이미지화되었다. 불사약,<sup>9</sup> 서불과차각자(徐市過此刻字)<sup>10</sup>처럼 서복은 고대 수수께끼 인물로 각인되었다. 중국에서는 사실을 바탕으로 실존 역사인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동진한 이야기는 사마천이 쓴 『사기』에 네 군데에 기록처럼 확정 피하기와 약선 구하기로 되어 있다. 불로초 찾기 설화 각편의 시황제와 서복은 한중일의 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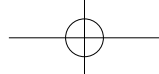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6 사마천, 『사기』 권6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 『사기』 권118 회남형산열전(淮南衡山列傳).

7 사마천, 『사기』 권6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 『사기』 권118 회남형산열전(淮南衡山列傳).

8 汪向榮, 『中國의徐福研究』, 中央公論社, 1986, 37-58면.

9 진성기, 『남국의 전설-제주민속총서2』, 일지사, 1968, 137-138면.

10 임석재, 『임석재전집10-한국구전설화경상남도편1』 1, 평민사, 1996, 48-49면.



상징인물이다. 서복전승의 역사성과 설화성은 맞물려 있다. 중국과 일본의 문헌 또는 전승토대에는 실재성 중심으로 기술되었으나 지나치게 간단하고 이와는 다르게 구비설화와 구비시가는 신뢰성의 의문과 함께 자료는 풍부한 편이다.<sup>11</sup>

자료1) 서불 제주도를 유람하였다. 서불은 시황제의 신임을 받던 인물인데 해외 유람이 하고 싶어서 황제에게 삼신산 불로초를 복용하면 영생할 수 있다고 건의하였다. “불로영생이 중요하다” 시황제가 받아드린다. 황제는 즉시 그 약초를 구해 오도록 명하였다. 서불은 곤륜산의 천년 묵은 고목을 베어 배를 만들고 동남동녀 오백 명을 태우고 출발하였다. 서불은 황해를 거쳐 조천포에 배를 대고 신선의 열매라는 암고란(시로미)을 얻은 후 서귀포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다. 서불이 과연 불로초를 얻었는지는 의문이나 조천포와 서귀포 정방폭포의 암벽에는 ‘서불과차(徐市過此)’ 또는 ‘서복과지(徐福過之)’라 새겨놓은 글자가 전하고 있었다. -〈정방폭포전설〉<sup>12</sup>

홍순만은 그의 『서복집단과 제주도』에서 ‘서불과차’ 글씨는 찾을 수 없게 되었지만 『심재집(心齋集)』 내용으로 실재성을 가진 유적이라 하였다. 그는 서귀포시 정방폭포 암벽에 서복이 새겼다는 글씨가 있다는 것은 전설로만 전하는 것은 아니고 목격한 제보자와 기록문헌에도 나타나고 있다<sup>13</sup>고 밝혔다. 그만큼 서복 행방은 곳곳에서 전승되었고 서귀포 지명처럼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하고는 일본 구주로 이동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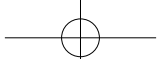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홍순만은 하영수 구술자료 〈서리꽃이 전설〉<sup>14</sup>를 통하여 ‘서리’가 옛날에 서

11 이창식, 「서불설화의 동아시아적 성격」, 『어문학』 88집, 한국어문화회, 2005, 238-249면.

12 홍순만, 『서복집단과 제주도』, 제주문화원, 2002, 앞의 책, 297면(부분 각색).

13 진성기, 『제주도 전설』, 백록, 1992, 158면(1956년 3월 서귀포 호근리 고흥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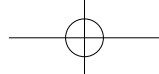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14 홍순만, 앞의 책 289-299면. ; 김규원, 「나의 생각」, 「남해 금산 바위에 새겨져 있는 그림 글자와 거기에 얽힌 전」, 『교육경남』 5호. ; 화전사 바로알기 모임, 『서불과차의 신비를 벗긴다』, 25-29면; 이형석, 「서복이 한반도에 남긴 유적과 문명의 성과」, 『발표집』 (제6회 서북문화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2007.).



불이 떠났다는 ‘서리’ 마을을 뜻하고, 서리꽃이도 ‘서북 일행이 떠난 곳’이라고 하여 서리꽃이로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대체로 “금산에 왔던 서불-서시로 와 전된 사례-가 서리꽃이를 출발하여 탐라로 갔고 서귀포에서는 진국으로 돌아갔다-서귀포 지명-는 소문내 일본 구주로 이동하였다”고 하는 내용이다. 중국-한국-일본의 해양탐색로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보로국 왕은 말갈족의 공격에서 보로국을 수호하고자 외동딸을 말갈족 추장과 결혼을 정략적으로 시켰고 공주가 갑자기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오로지 해동국 금강산 금란굴에 있는 장생 불로초만이 효험이 있다는 신하들의 말을 들은 왕은 즉각 출정을 명하면서 왕은 서북과 같은 낭패가 없도록 엄하게 말하였다고 하는 보아 이를 입증한다.

자료2) 서북 연구가 장량췌(張良群·76, 중국 서북회 부회장, 제주도·남해·거제 발자취 답사)은 “한·중·일 3국 학술회의를 올 가을 서북의 고향에서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시황의 명에 따라 2200여 년 전 불로초를 구하러 한반도로 떠난 서북(徐福)의 이야기는 전설로 치부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얼마나 유구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한중 관계가 수교 20여 년 만에 이처럼 가까워지게 된 것은 서북의 항해와 같이 오랜 교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량췌 지론인데 서북에 관한 단행본 네 권을 펴냈고, 발표한 논문을 모두 합치면 글자 수로 60만 자 분량에 이른다. 그 중 가장 애착을 갖는 건 『서북과 한국』이다. 서북 출항 2222년째인 2012년에 펴냈다. 장 부회장은 “자랑 같아 부끄럽지만 종전 중국 학계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던 부분을 메운 저서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북이 불로초를 구하러 한반도에 왔다는 건 한국인에겐 상식이지만, 중국인에겐 그렇지 않다. 장 부회장이 처음 지인들에게 『서북과 한국』을 쓴다고 했을 때 대부분 “서북은 일본에 간 것까진 아는데 한국과는 무슨 관계냐”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수교가 빨라 학술교류가 일찍부터 활발했던 일본과의 관련성에 중국 학자들의 연구가 집중되는 바람에 일어난 현상이다.



장 부회장은 장쑤성 련윈강(連雲港) 시립방송국장 등을 지낸 전직 관료다. 그는 련윈강이 서북의 고향이란 인연으로 서북 연구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러던 중 관심 영역이 넓어져 1995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제주도와 경남 남해·거제 등 서북의 발자취가 어린 곳을 여러 차례 답사했다. 서귀포 정방폭포의 절벽이나 남해 금산, 거제도 해금강 등엔 “서북 이곳을 지나가다”라고 새겨진 석각이 남아있다. 또 조선시대 신숙주의 『해동제국기』 등 한국에 남아 있는 관련 기록을 샅샅이 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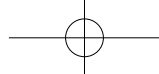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그러한 과정에 이세기 한중친선협회장, 작고한 홍순만 제주도 서북학회 이사장 등과의 교분이 깊어졌다. 장 부회장은 “제주도 서북공원에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의 친필 글씨를 새긴 각석(刻石)이 서 있고, 시진핑(習近平) 주석도 저장성 당서기 시절에 이곳을 다녀갔다”며 “2200년 전의 고대 위인 서북이 지금도 한·중 양국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북의 행적을 좇는 장 부회장의 답사는 일본으로까지 이어졌다. 일본에서는 서북 일행이 오곡 씨앗을 휴대했다는 기록을 토대로 도작(稻作)문화를 전한 주인공으로 보기도 한다. 일본 와카야마 현에는 서북의 무덤이라고 전해져 오는 곳에 묘비가 세워져 있다. 학계에선 서북이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간 것으로 추정한다. 장 부회장은 “서북을 매개로 한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사는 오늘날 많은 교훈을 주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세 나라가 힘을 모아 유적지와 기록 등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2015. 5. 27. 일자)

진시황의 장수담, 서북의 동도담(東渡談)도 못지않은 비밀을 지닌 것은 불로초의 실체이다.<sup>15</sup> 서북전승의 핵심적 화소는 불로초, 삼신산이다. 그 곳에 영지, 시로미, 옥지지, 산삼, 천태, 구기자, 산청목, 오미자, 금광초 등이 등장하였

15 용구시, 『徐市過之』를 『서불과지자료집』(번역, 서귀포시, 2000)으로 출간되었다. 영화 고급대전진용전.



다. 하지만 블로초 설화성에 비춰볼 때 영지 등 어느 특정한 것에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도교적 신선사유에서 발상한 것이고 고대천문 신선술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이상적인 약초일 뿐이다. 그러나 서북 관련 이야기<sup>16</sup>를 통해 볼 수 있는 점은 동아시아에 실재하는 생명초 또는 환생초를 상징하는 듯 보인다. 이는 신선사상에서 나온 불사설화의 일반적 원리<sup>17</sup>이기도 하다. 역사문헌 기록과 블로초 출항지전설의 서술단락을 재구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서북 팩션형 핵심서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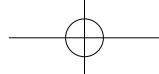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 진시황 명으로 서북 선단 출발
- 추격대 선단과 갈등
- 원주민과 갈등과 정착
- 한반도 정착과 블로초 탐색
- 추격대와 결전, 추가 선단 도착

## 2.2. 일본의 서북전승

서북은 일본에서 신으로 등장한다. 일본에는 약 30군데나 되는 장소에 전설과 기념비 등이 분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가시-모로토미마을, 후지마을은 2005년에 마을 합병에 의해 사가시로 뿔-의 설화는 2000년 동안 서북 정착 내용이 전해져오고 있다. 중국 『사기』, 『삼국지』, 『후한서』에 등장하는 서북 동도행 연관된 일곱 군데의 기사를 종합하면 불사약 획득하기는 겉으로의 전략이고 감춰진 추구는 문화 전파와 이주의 다면적 측면이 있다. 진시황은 방사 서북의 청을 받고 선약을 구하기 위해서 어린 남녀 오백 명과 더불어 곡식과 생필품까지 포함한 여러 인물들을 동쪽으로 보냈다고 하였다. 그들이 블로초

16 척천범, 『서북동도』 (글누리, 2010)가 번역 출간되었다.

17 곡금량, 「서북정서: 환황해권 해양사회의 문화유전요소와 족군 연계매개에 대한 연구」, 『제주도연구』 21집, 제주학회, 2002, 73-88면.



를 구하기 위해 찾아간 목적지는 ‘가는 곳이 멀지 않은’ 발해의 한 가운데에 있는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의 삼신산이라고 말하지만 지역적 경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여기서 봉래산은 금강산을 뜻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삼신산은 바다의 한 지역에서 신기루처럼 비치는 다른 지역의 산을 보고 그곳이 신선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학계의 이야기도 존재한다. 그런데 선약을 구할 수 없게 된 서복 집단은 많은 난관으로 인해 결국 돌아오지 못한다. 동도과정에서 황해, 남해, 제주 밖에 있는 단주와 ‘평원광택(平原廣澤)’<sup>18</sup>의 여러 지점에 도착하였던 셈이다.<sup>19</sup> 당시에 한반도는 부족국가에서 고대국가 시대로 옮겨지는 흐름으로 보아 진한 남쪽 부근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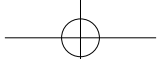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자료3) 남해 금산에는 기이한 바위가 있다. 바위에 이상스런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 글자는 서불과차라는 글자라 전한다. 옛날에 중국에 진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왕인 진시황이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서불이란 사람에게 동남동녀 오백명을 거느리고 삼신산에 가서 불사약을 구해 오라고 동쪽으로 보낸 일이 있었다. 서불이 이 금산에도 왔다가 이렇게 자기가 지내었다는 표적으로 써 놓는 것이다. 서불은 더 동쪽으로 가서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의 첫 왕인 신무천황이 되었다.<sup>20</sup>

-〈서불과차문자(徐市過此文字)〉, 남해군 설천면 류동규, 33세, 남, 1968. 8. 24.

18 寺尾善雄, 『徐福の来日伝説』, 旺文社, 1985, 45-67면(이기섭 제공). 일본 『소도경전』 일본의 기이(紀伊)에 서불이라는 제명의 각자가 있다. 기이국(紀伊國)의 신궁에는 서불의 묘와 사당이 있다고 한다. 서복은 일명 서불이니 불은 복(福)의 음이 혼동된 것이다.

19 용구시, 『서불과차자료집』 (번역, 서귀포시, 2000), 뮤지컬 서복.

20 각편 각색: 박정석, 「영주신산을 중심으로 한 고찰」, 『서복과 동아시아 문화교류』, 서귀포시 서북문화국제교류협회, 2002, 87-88면, 〈블로체약가〉, 『한국구비문학대계』 8-5, 거창군 거창읍, 483-486쪽, 임석재, 『임석재 전집 10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편 I』, 평민사, 1996, 48-49면.



자료4) 사가시의 북쪽 편에 곤류산(金立山)이 있는데, 그 정상 근처에 석조의 곤류신사상궁(金立神社上宮)이 있고, 산허리에는 중궁(中宮), 산기슭의 마을에는 하궁(下宮)이 있어서, 봄과 가을에 제례의식이 행하여지고 있다. 금립신사의 병설유치원의 아이들과 지역의 아이들이 많이 모여 연기하는 부류(浮立)(사가지방의 향토무용으로 신사에 봉납되어지는 것) 봉납이 있으며, 어른과 아이들의 참배는 물론 멀리에서도 참배를 오는 등 많은 인파들로 북적거리며 흥이 난다. 그 외에 곤류신사에서는 50년에 한 번씩 큰 축제가 행하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3일간에 걸쳐 산에서 내려온 신여(神輿)라는 가마를 찌쿠고가와(筑後川)의 상류 지점까지 운반하여, 모로토미의 하궁금립신사에서 제를 지내어 하룻밤을 묵고, 서북상륙 후 곤류까지 북쪽을 향하여 간 길을 따라 가서 그 신여(神輿)가 산으로 돌아온다는 매우 힘들고 대단한 축제로서 가장 가까운 최근에 있었던 것은 1980년으로 2200년 만에 행하여졌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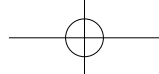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서북상륙>, 佐賀縣 村岡央麻, 2006.

자료3)은 서북이 신무천황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각 편에는 일본행을 암시하고 각편의 불로초의 추적 과정을 말한다. 이 각 편에서는 서북문화의 탐라적 탐색을 허락되지 않았으며 정착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진에서 전하는 영주산, 삼신산은 금산, 금강산과 지리산, 한라산 등과 밀접하다. 회계는 절강성 회계, 단주는 신선이 사는 바다에서 회계와 교역을 하는 곳<sup>21</sup>이다. 이는 단주가 실제로 한반도 안의 특정지역을 뜻한다. 진 도래의 이주 자취는 구주 여러 곳에 드러난다.<sup>22</sup> 아울러 자료4)처럼 구비유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잇는 초기 해양실�크로드를 드러낸 점이다.

서북선단이 불로초 구하기 목표로 한국을 거쳐 정착한 곳이 일본 구주인데 이를 위해 서북선단의 상륙지, 무덤, 약신신사, 서북학회 등이 전승된다. 주요 성 이름도 후쿠오카, 후쿠시마, 후쿠야마, 후쿠다, 후쿠하타, 후쿠카이, 후쿠즈

21 汪向荣, 『中国の徐福研究』, 中央公論社, 1986, 87-98면(김명순 제공).

22 임석재, 『임석재 전집 10-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편 I』, 평민사, 1996, 48-49면.



미 등의 ‘후쿠(福)’가 들어가 있다. 와카야마(和歌山)현의 신구시(新宮市)에는 서복 일행이 도착하여 거주하다가 죽었다는 서복 묘가 있다.<sup>23</sup> 앞서 말한 일본 ‘평원광택’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인데 정확하다고 짚어낼 수 있는 것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 학계는 서복이 일본에 들렀다 하여 후지산이 봉래산이라고 주장한다. 구주에서는 묘를 비롯 신격화된 면모가 있다. 더구나 곳곳에 의례에서도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의 사가현 등에 고루 남아 있다. 신사무덤신화와 불로초전설의 서술단위를 재구하여 맥락화하면 다음과 같다.

#### 서복 껍선형 핵심서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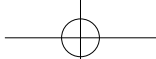
- 한반도 남해, 제주도 등에서 서복 선단 재출발
- 추격대 선단 추격 위기와 일부 귀향
- 일본 원주민과 갈등과 정착
- 일본 불로초 탐색과 의료문화 전파
- 일본 의약신 등 좌정

### 2.3. 한국의 서복전승

한반도에 서복과 연관된 설화, 바위글(岩書刻)이 전하는 증거는 여러 군데 볼 수 있다.<sup>24</sup> 서복전설의 현장은 장소성의 의미가 있다. 게다가 물적 증거의 구비담론을 통해 계속 재생되어 증표의 유산적 가치가 있다. 서복의 수로와 해로의 이동경로와 관련이 있다. 남해 금산 바위글자와 남해 서리꽃, 서귀포 정방폭포 서복과차, 여수 동도리꽃 지명전설, 거제도 해금강의 해동한국(海東漢國), 소매물도 신선전설, 웅진 영흥도 양로봉 화상문자 등이 망해준다. 서귀포

23 미즈노 아키라, 「일본에서의 서복에 관한 전승과 신앙」, 『제주도연구』 21집, 제주학회, 2002, 313-318면.

24 홍순만, 『徐福集團과 濟州道』, 제주문화원, 2002. <진시황이야기>(『한국구비문학대계』 6-11, 화순군 한천면. 217-218면) 등.



정방폭포에 ‘서불과지(徐市過之)’ 곧, ‘서북이 이 곳을 지나다’라는 글자가 고대문자인 과두문자로 새겨졌다. 19세기 말의 『삼한금석』과 탐라설화 속에서도 ‘서북과차’가 전한다.

불로초설화는 각자설화든 서북의 불로초 찾기에 모아지고 있다. 서북이 사냥생활, 새의 안내, 신선나라 건설, 불로초초 구하고 귀향 등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서귀포는 서북과 관련되어 있는 지명전설이다. 이처럼 서북설화의 분포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다. 서북설화를 포함한 전승물에는 인물이야기의 흥미와 호기심을 지니고 있다. 서북은 마치 해양루트를 개척한 지도사처럼 이상의 세계를 탐색한 첫 주인공인 첫 번째 인물인데 한국에서는 신격화되지 않았고 물적 증거로 불로초 신선 캐릭터로 각인되었다.

한국에서 서북설화는 문화교류의 발신자 역할을 하고 있다.<sup>25</sup> 문헌자료든 암각화자료와 구술자료든 불로초와 배에 관한 상징적 고대인물이 되고 있다. 해로(海路)와 관련이 깊은데 고대 문화의 이동을 암시하고 있다.<sup>26</sup> 불로초 탐색하기는 서사구조의 핵심이지만 이면에는 여러 문화 유전자가 맞물려 있다. 서북의 이야기가 오랜 세월 구연되는 이유는 인류의 도전욕구에 해당하는 탐색행로가 내재되어 전승력을 보여준다. 서북구비 전승물에는 시황제의 역사담, 서북 지명전설, 서씨 불사약, 불로초 문학, 제주 해녀노래, 진시황노래<sup>27</sup>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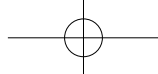
자료5) 팔선진 멜긔(풍어제 참봉놀이)

진나라 진시왕이 천하를 통일하여  
만리장성 싸놓고 옥황상제 보냈다는  
서북이 불러다가 해동국 한라영산

25 이창식, 「서북설화의 동아시아적 성격」, 『어문학』 88집, 한국어문화회, 2005, 231-252면.

26 이창식, 「서북전승의 정체성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동아시아고대학』 12호, 동아시아고대학회, 2005, 53-90면; 이창식, 「고대 서북전승과 민속제의」, 『영주서북문화』 5호, 서북문화국제교류협회, 2006, 40-56면.

27 <진시황 노래>, 『한국구비문학대계』 8-9, 김해군 상동면, 1085-108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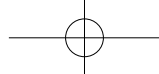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삼신산의 불사약을 캐어오라 명했더니  
 서복이 명을 받아 구층탑 아홉 단에  
 진나라 귀한 음식 제단에 출려 놓고  
 새, 한, 마, 놉(東, 西, 南, 北)

-김만보심방 <멜곳> 필사(김헌선 제공)

자료6) 이여도사나 아어으 이여도사나 아허 / 이여사 아하아 이여  
 도사나 아하

윗날윗적 어으 진시왕은 어으 / 만리성을 어으 둘러놓고 오호  
 삼천궁네 어으 모여놓앙 아하 / 노념놀이 어으 시다 히  
 이이거라 흐 이기어라 흐 / 이여사아나 이여도사나 하  
 서씨는 으흐 진시황 으흐 / 보고를 으흐 하시는다 하  
 탐라국에 예혜 불로초를 으흐 / 캐여다가 아하 늘그막에 예혜  
 잠수시면 예혜 임금님은 으흐 / 천년만년 예혜 사십니다 아하  
 진씨왕은 으흐 허급을 으흐 / 시는다 아하 이여도사나 하  
 진씨왕은 으흐 좋아라 아하 / 탐라국에 예혜 불로초를 으흐  
 캐여오라 아하 맹령을 으흐 / 내와간다 히 이기어라 히  
 이기여?라 히 요만지고 오호 / 아니나가민 으흐 얼맬지영  
 배가가려 으흐엇 서씨는 으흐 / 동남동녀 어허 오백맹을 으흐  
 실러놓고 으흐 삼백석의 이히 / 균량미를 으흐 실러놓고 흐  
 허리띠밧딕 이히 화장아야 아하 / 탐라국을 으흐 불로초를 으흐  
 캐레가자 아하 이여도사나 히 / 이기여서라 히 이기여서라 히  
 노를잡고 오호 탐라국에 예혜 / 들어오는 으흐 현상이여 어허  
 이여도사나 하  
 탐라국에 예혜 들어오란 아하 / 어느포구 우흐 가느냐 아하  
 시든 으흐 서귀포로 오호 / 입항고 오호 기영연 어허  
 윗날윗적 어허 서씨가 아하 / 입도신 이히 포구라서 어허  
 서귀포로 오호 정신 이히 / 서귀포란다 아하 이여도사나 이히  
 이기여서라 히 이기여서라 히  
 탐라국에 예혜 불로초를 으흐 / 아보니 이히 불로초는 으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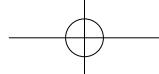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전해엇고 오희 오디로나 아하 / 가실손고 오희 동남동네 에헤  
 오백멩을 오희 다시실령 어허 / 일본에 에헤 사국으로 오희  
 입도야 아하 오백멩을 오희 / 남너남너 어허 짝을지완 아하  
 일본백성 오희 씨전중을 오희 / 옛다는 오희 진씨왕의 이히  
 전설이여 어허 어여도사나 히 / 이기여서라 히 이기여서라 히

- <해녀노래> 일부,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제주시 삼도동. 486-489면.

위 자료5)는 가창구조를 지닌 민요임에도 불구하고 서북의 형상화-진시황, 탐라, 불로초, 일본사국-가 문학적으로 이루어졌다.<sup>28</sup> 흥미진진한 서북담론인데 서북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재맥락화의 중요한 원천 구실을 한다. 서북이야기의 통시적 의미를 이러한 해녀노래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방폭포 각자처럼 입에 내려진 서북민요인 셈인데 제주 서귀포 등이 영주, 탐라의 영생 장소성을 암시한다. 제주 소리꾼 김영부는 서우젓소리 각편을 부르며 불로초전설까지 작시하여 불렀다는 점이다.

<해녀노래>에 수용한 서북은 정방폭포 주변 각자만큼 오래된 증좌의 현주소이다. 이처럼 서북은 제주 사람들에게 오랜 세월 살아 있었다. 입에 새겨진 서북은 제주인에게 유포되어 곧 ‘이어도’의 이상적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장수, 영생의 욕망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서북 부르는 희망과 생명에 대한 찬탄이다. 해녀와 바다의 생명력은 서북으로 연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자료6)의 확인은 정방폭포 그림글자처럼 남다른 뜻을 지닌다. 서귀포에는 서북이 삼신산의 하나인 영주산(한라산)을 찾아 정방폭포 해안에 닿을 내리고 영주산에 올라 불로초를 구하였다는 설화가 전한다. 서북의 정체성은 이처럼 연고 지역민의 삶에 녹아있는 생명성, 그 자체다. 각자전설과 불로초전설의 서술편린을 재구하여 맥락화하면 다음과 같다.

28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재 설화, 민요의 자료에는 구비단문 고사로 인용된다. 서북의 이동과 정착을 암시하는 각편들이 존재한다. <청춘가>, 『한국구비문학대계』 5-6, 정읍 태인면, 836면.



### 서복 껍선형 핵심서사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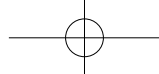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 한반도 남해, 제주도 등에서 서복 선단 도착
- 추격대 선단 추격 위기와 일부 귀향
- 한반도 원주민과 갈등과 정착
- 한반도 불로초 탐색과 전설 각자 전파
- 한반도 장수신선 증거

## 2.4. 한중일 서복전승의 인문학적 복원

문헌의 확실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물 자체가 한중일의 신비감에 가려 여러 의문을 촉발시킨다. 중국과 일본 학계는 일찍부터 서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그를 서복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며, 정기적으로 학술대회 또한 개최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서복설화에 대한 연구가 남해, 서귀포 등 민간단체 차원-전북전시관 등 부분 연계하는 정도-에서 제주 서귀포지역 중심으로 논의된 바 있다.

불로초 설화의 중심에 있는 방사인 서복의 ‘출해동도(出海東渡)’는 2000년 전 한국과 중국, 일본의 세 나라-앞의 핵심서사 전제-의 관계에 얽힌 이야기인데 서복전승 관련 내재적 의미가 매우 주목된다. 서복의 여러 복합 성격은 다양한 추측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받아들이는 감성과 발상에 따라 여러 OSMU가 가능하다. 서복의 교류적 캐릭터를 읽어야 한다. 특히 방사의 기능은 도교적 의술적 조력자 이상의 다면적 역할을 이행했던 상위 관료라는 점에서 동시대적 의미가 있다.

불로영생을 강조하던 도교사유의 방사로서 인물들은 태극도를 통해 민속적 의연과 내포를 늘였다. 이 속에 담겨있는 불로장생의 비결은 서복의 브랜드이다. 태극에서 음양으로 음양에서 오행으로 분화되고 만물이 만들어진다. 생생력과 재생의 원리에 대한 장수관념을 확산시킨 것이다. 방사의 태극성은 후대



에 서북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 내면에 있는 블로장수의 원리는 심층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는 서북에 대한 연구<sup>29</sup>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다.

서북전승 유적의 한중일 분포는 해양 흐름의 문화사적 의미를 보여준다. 동아시아의 구비서사시<sup>30</sup>까지 이행되지 않았으나 고대적 의례(儀禮)가 수용양상을 드러낸다. 서북 구비서사적 형상화와 전파력에 대해 따져야 할 점이 있으나 민족적 수용이 아닌 국면을 보여주었다. 서북은 초인적인 면모는 드러나지 않지만 불사약을 통해 인간육구의 성향을 드러낸 점이다. 만약 서북이 동아시아 민족론에 결부 대립과 갈등 논리로 지속되었다면 한국, 중국, 일본 수용양상이 민족성과 깊게 심화되었을 것이다. 서북전승이 동도행과 맞물려 있으며 고대 문화의 미스테리가 되어버린 측면도 있다. 지역신화에 접촉, 수용하면서 독자적인 민속 요소를 남겼다. 탐라를 거점 삼아 이동경로를 통해 추정하면 단순한 블로초 탐색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서북 일행의 항로는 중국에서 제주 서귀포 일본 규슈지역으로 옮겨간 것이다. 한국에서는 다양하게 서북 일행이 기착했었다는 흔적이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제주도에서 조천<sup>31</sup>을 비롯한 서귀포(西歸浦)는 서북이 서쪽으로 돌아간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는 해석이 있다. 각편의 분포에 따라 변이형이 존재하나 대체로 서북의 이동방향과 블로초 찾기로 구성되어 있다. 서북설화의 노정기 모습은 시황제의 불사약 획득하기, 서울의 동도행, 남해 일대와 대마도의 블로초 탐색하기, 블로초 탐색하기의 좌절, 다른 곳으로의 이동 당위성 위주로 전개되어 있다(〈남해도 전설〉<sup>32</sup>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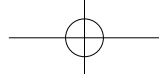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구비전설은 가시적 물적 유적과 맞물려 있다. 설화 전반에 서북의 항해교류 동기와 진시황의 욕망은 맞물려 있고 정착과정의 혼돈을 암시하는 망상과 상

29 이창식, 「서북설화의 동아시아적 성격」, 『한국어문학』 88집, 한국어문학회, 2005, 231-252면.

30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13-44면.

31 김보현, 『조천지(朝天誌)』, 1976.

32 홍순만, 앞의 책, 제주문화원, 2002, 298-299면.



어때 등의 신화소가 있다. 서복이 당초 행선지로 잡은 삼신산과 그 산의 발해, 서복 일행이 정착하였다는 단주는 한반도 내에 있었다. 서복은 제주도, 남해안 일대 구비전승으로 보아 일차적으로 정착하여 전파시킨 곳은 고대 마한, 진한 일대인 듯하다. 중국에서 논의도 대부분 이러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물적 증거가 남해 바위유적이다. 남해군 양아리(금산)의 각자<sup>33</sup>가 서복전설의 대표적인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해 암각은 일찍 이동선이 말한 대로 다섯 곳이 있으나<sup>34</sup> 서불과차/서불과지로 알려진 것은 가로 7m, 세로 4m w정도의 평평한 바위 위에 1m, 5m 정도의 바위각자가 보인다. 바위 유적은 크게 두 가지 설이 존재하는데 각문설과 각화설이 서로 맞서고 있다. 각문설은 고문자이거나 상형문자, 혹은 진나라의 전자(篆字)일 것이라는 주장이며 각화설은 물형그림이나 사냥그림, 또는 태양을 뜻하는 그림이라는 입장이다. 이 바위 유적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계에서 논란이 있으며 정확하게 어떤 것이 더 정확한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장명수는 그림 새긴 바위의 형상과 입지로 보아 염원을 실어 바다로 내어 보내려는 의지가 깃들여 있는 것 같기에 해양문화와 깊이 관련된 것<sup>35</sup>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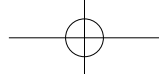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이 각자에 대한 연구가 종합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서복의 도래를 실증하는 증거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암각이 서복의 출해동도에 따른 제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추적할 만한 단서와 증거들이 주변에서 보인다. 『사기』〈회남형산열전〉 등과 양아리 서성태와 남해 구비설화 등의 자료를 연결해 볼 때, 서복의 이동경로를 알 수 있다. 앞서 서복의 내용으로는 불로초, 해양문화의 교류, 영생 이상향 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내용들은 서복의 동도행 전략과 고대제의 현상과 문자, 기호나 이와 부응한 그림글자<sup>36</sup>는 고대

33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 43번지, 1974년 2월 경상남도 기념물 제 6호로 지정번호.

34 이동선, 「신비의 서불과차」,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수상집』, 전국문화원연합회, 2003, 313-356면.

35 장명수, 「한국암각화의 문화상에 대한 연구」, 인하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1, 43면.

36 시라카와 시르카, 심경호 역, 『한자 백 가지 이야기』, 황소자리, 2005, 351-390면.



인의 제의 현상을 담아낸 형상기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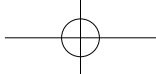
남해일대 서리유적에는 노정기 서사방식으로 당도한 자취가 있다. 바닷길과 육로를 통한 서북의 행적은 문화교류의 추이가 나타난다. 남해 서리곶 중심 방경 가까이에 있는 관련 전설에는 남해 서불과차의 각자가 갖는 의미는 서북 선단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주변의 전설과 함께 서불을 복원해보면, 서북은 부소대에 있었던 선인 부소를 만나고 금산의 상봉을 중심으로 하여 고대집단 부족국을 형성하여 어느 정도 정착하였다. 남해도 주변을 탐색하는 한편 심산 계곡에서 선약을 구하고 수렵을 즐기고 삼신제와 천제를 지냈다. 천제는 농경사회와 관련 있지만 한반도의 농경문화의 생업활동에는 명확한 영향을 주지는 못했던 것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 서북 각편들에서 탐라 일대와 남해 금산 일대에 서북 행적과 바위글자의 설화가 널리 전승되어 있다. 남해 양아리, 정방폭포의 각자와 설화 등에서 표면적으로 보면 서북선단은 남해안 일대와 제주 한라산을 오르면서 불로초를 찾았다.<sup>37</sup> 이러한 행적은 동아시아 교류의 전파와 수용, 대립을 말하고 있다.<sup>38</sup> 서북설화의 유전자에는 시황제의 무게가 적지 않은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인물설화로서 역할을 드러내는 쪽보다 시황제의 신선적 소망, 정치성에 초점이 모아진 측면도 강하게 보인다. 더구나 동도행에서 고래 상징과 정착 갈등은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현상을 보면 이면에는 문화적 교류, 곧 고대 농경문화와 도교문화 등의 전파와 의례행위 자취를 주목해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동아시아 전역에 그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것인데 중국, 일본의 설화 역시 이와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큰 나무를 베어 선단을 만들고 동남동녀 오백여 명을 거느리고 늙지 않는 약초를 찾아 출발하였다. 삼신산은 제주 한라산 곧 영주산, 지리산 곧 방장산(함양 서북길), 금강산 곧 봉래산으로 구전되어 있기에 남해와 서귀포가 주로 지목되었다. 서북은 한라산으로 불로초를 캐러왔다가 구하지 못하고 시로미라는 열매를 얻고 서귀포를 거쳐 일

37 홍순만, 앞의 책, 「정방폭포의 각자」, 283-293면.

38 정수일, 「서북도한고」, 『제주도연구』 21집, 제주도학회, 2002, 93-127면.



본으로 갔다는 것이다.

〈불로채약가〉<sup>39)</sup>에는 송악산 불로초 채약-서복배-불로가-진시황-불사약 구하기의 사화(史話) 서사 형태를 보여준다. 특히 〈불로채약가〉는 놀이노래라고 보았는데 서사 줄거리가 김해지역의 〈진시황노래〉와 유사하다. 불로초 서복동도행 화소가 담긴 민요 각편이 이처럼 드러나는 것은 지명전설과 지역요, 무가와 민요의 연행적 넘나들음도 있지만 서복전승의 다양한 분포실태를 말해준다. 이러한 서사적 구전민요 속에 서복이 형상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곧 허무한 삶의 유한성을 절감하고 보다 이상적인 불멸의 영생성을 추구하려던 잠재의식과 밀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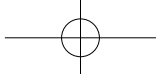
서복전승의 한국적 수용과 분포는 평민에서부터 지식계층까지 표출한 것으로 보아 고대 인물로 후대에까지 다양한 수용 변신, 왜곡 확대, 대체 부여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체로 서복의 불로초 찾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서복선단 수립-주술-정착-약초 탐색으로 담고 있다. 서복전승의 핵은 ‘신초 구하기(불로초 구하기)’에 있다. 노화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인류 미래의 숙제이다. 환상성과 영생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도교적 방사가 그 중심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 역사에는 양면적으로 등장하는 방사로서 주술사와 문화척 개척자가 그것이다. 한국 설화에는 불로초 연관 산의 탐색자로, 일본 설화에는 신사 등 신격화되어 숭배 대상으로 전하고 있다. 궁극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체로 문화 교류와 전파의 화신으로 평가된다. 소통 방식이나 향유층의 정서가 바뀌었다.<sup>40)</sup> 향로의 이동이 교류를 의미하여 방사로서 서복의 역할을 말해주는 데 여기서 이 역할은 토착적 신선의식과 맞물려 방선구약의 길을 개척하는 개척자의 역할인 것이다.

서복전승과 같은 옛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문학이나 인류학 분야에서 지질학, 천문학, 심지어 자연과학 분야에까지 장수예의 꿈이 자리하기 때

39 『한국구비문학대계』 8-5, 거창군 거창읍, 483-486면.

40 윤명철, 「서복의 해상활동에 대한 연구」, 『제주도연구』 21집, 제주도학회, 2002, 31-5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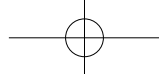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문이다. 황당하고 허구로만 여겨 온 옛이야기 속에 지나온 인류의 진정성이 감추어져 있고 세계의 공유 전통지식과 지혜가 내재해 있다고 믿는 것이다. 서북설화적 층위들도 그 이야기 요소를 민던 향유공동체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다. 서북설화가 지속되면서 그 중요화소 부분이 인성에 점점 접근하여 그 서술이 오늘날 말하는 구비구술문화라는 점이다. 서북전설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신격적 행위, 갑남을녀들의 그 기이한 역할과 재능, 신비로운 용기 등이 드러난다. 제주 본풀이신화-제주 마을 당(堂)의 신격 기능 유전자 관련성-에 보이듯이 범인이 이르지 못하는 국면이며, 하늘과 신계가 내리는 것이거나 하늘이 돕는 것처럼 전해지고 있다.

### 3. 서북콘텐츠의 팩션형 OSMU와 스토리텔링 방향

한중일 어느 민족에게나 신화는 존재한다. 각 나라마다 서북의 정체성은 조금씩 다르다. 신화가 존재하는 원론으로 보아 공유와 소통의 사이론이 있다. 그것의 역사적인 신빙성 여부는 명확하지 않을지라도 공통DNA를 통해 서로가 마음속에 품어 왔던 민족적 정체성 그리고 교류 차원에서, 한중일의 신화 가치도 이제는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서북신화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통해 한중일의 정체성을 확인하였다. 중국은 역사적 신화로, 한국은 전설적 문학으로, 일본은 철학적 신화로 수용하고 있다.

문화향유층은 특정한 도메인을 통해서 주체의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한편으로는 문화기술로 도메인을 표출함<sup>41</sup>으로써 교류와 상생이 진전될 것이다. 서북전승 관련 OSMU에 서로 상통하면서 아울러 공동체적 정체성을 지속가능으로 추구하는 특성을 드러낼 것이다. 뒤에 스토리텔링론에서 구체화하였지만 서북은 국가 범주나 민족 범위에서 분석하는 것보다 보편적인 문화교류 코드와 아

41 원광연, 「디지털 문화 예술의 발전에 관하여」, 『디지털 시대의 문화예술』, 문학과지성사 1999. 159-189면.



이론으로 파악해야 한다. 서복의 해양 이동 이야기야말로 부가가치의 측면이 있다. 위의 서복전승을 통해 정체성과 아울러 동아시아의 보편성을 말할 수 있다. 이야기 속에서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상징성도 있고 불사약의 공유성을 새로운 담론으로 가치창조를 보일 수 있다.

서복의 인문적 가치를 살려 지금 여기의 교감 장르를 만들어야 한다. 서복의 동아시아적 전통은 시공을 넘어 꿈과 상상력-힐링, 케어, 슬로시티 관련 신화를 모태로 발현-을 자극하는 문학 제재의 원형성에 있다. 서복 관련 문화적 코드는 동아시아적 인문학의 상징성과 미래성이라는 점이다. 서복의 모험과 동경, 문화실천 등은 스토리텔링의 소프트 파워로 작용한다. 이 오래된 인문학 유산을 상품화할 수 있는 길찾기가 필요하다. 블록버스터 문화산업이 된다. 서복의 디지털스토리텔링<sup>42</sup> 작업을 통한 OSMU 문화콘텐츠산업이 실현된다. 서복 스토리텔링은 미래 향유층에게 서복의 공감요인을 알리고자 하는 서사콘텐츠 짜기이다. 재미있고 생생한 서복 이야기는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행위의 총체물이다.<sup>4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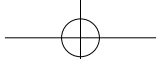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서복이야기는 공통의 문화적 연대를 가져오는 문화통합적 차원의 동아시아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서복설화는 구전사화처럼 도교의 사유체계에서 발상한 전승물이다.<sup>44</sup> 한국은 중국, 일본과 달리 기록전승물보다 구비전승물로 존재하며 서복의 향로는 고대 한중일 문화 이동로와 관련 있고 후대 장수 키워드의 구비전승물에 일정 작용하였다. 이렇게 서복은 고대사의 수수께끼의 열쇠를 진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살려 지적 재산 확보와 미래 고부가가치 창출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서복을 전설인물의 구비전승화와 전설인물 살리기를 통해 문화산업화 연계전략을 세워 제주의 지역성과 동아시아적 국제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감동적인 국제 감각을 살려서 서복전승의 원형과 가치를 통해 문화공유

42 최혜실, 『모든 견고한 것들은 하이퍼텍스트 속으로 사라진다』, 생각의나무, 2000, 23-27면.

43 최시한, 『스토리텔링 어떻게 할 것인가』, 문학과지성사, 2015, 34-45면.

44 정복석, 「OSMU방식에 의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연구」, 『석당논총』 42, 동아대, 2008.



의 창조성이 연동되는 문화콘텐츠산업화의 항목<sup>45</sup>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시놉시스 서북 스토리텔링 대안으로 앞 장 서사 논의에 대해 동도탐색담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탐색과 갈등(서북 팩션형 핵심서사1, 앞에 글)

-진시황 명으로 서북 선단 출발: 서북의 이중성

-추격대 선단과 갈등: 고난1

-원주민과 갈등과 정착: 고난2

-한반도 정착과 불로초 탐색: 위기(재미 요소)1

-추격대와 결전, 추가 선단 도착: 위기2

탐색과 교류(서북 팩션형 핵심서사3, 앞에 글)

-한반도 남해, 제주도 등에서 서북 선단 도착: 영주산 발견1

-추격대 선단 추격 위기와 일부 귀향: 위기3

-한반도 원주민과 갈등과 정착: 위기(공유 요소)4

-한반도 불로초 탐색과 각자 전파: 교류1

-한반도 장수신선 증거: 교류2

탐색과 정착(서북 팩션형 핵심서사2, 앞에 글)

-한반도 남해, 제주도 등에서 서북 선단 재출발: 도전

-추격대 선단 추격 위기와 일부 귀향: 위기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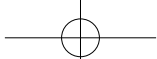
-일본 원주민과 갈등과 정착: 위기(욕망 요소)6

-일본 불로초 탐색과 의료문화 전파: 교류3

-일본 약신 등 좌정: 영주산 발견2

서북전승은 탐색과 위기가 반복으로 전개되는 서사원리이다. 불로초 찾아가는 표면적 동도행에 모험담이 주체-움직임-시공-흥미 요소로 구성된다. 서북 설화는 자아와 세계의 신화적 질서, 세계의 전설적 경이, 자아의 민담적 능력 같은 그 자체로는 사실이 아니다. 게다가 가정을 통해서 사실 이상의 사실적

45 이창식, 「서북전설의 스토리텔링과 킬러콘텐츠」, 『공연예적 감성과 킬러콘텐츠』, 월인, 2016, 175-214면. 서북 킬러콘텐츠 추진방향 네 단계 제시.



요소를 다루는, 전후의 유기적 긴밀선을 가진 이야기이다. 특히 서복전설의 유형이나 화소가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원리가 또한 중요한 특징이다. 여럿을 한꺼번에 종합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구전적 가치를 드러낼 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서복각자(徐福刻字), 한라산 영지(시로미, 상항버섯), 서복지명 등 유적과 연관지어 개연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감안하면 구비문화로서 본풀이신화의 친연성과 그 소급성을 읽을 수도 있다.

정방폭포 암각글자와 더불어 서복전설은 불로초로 인해 영생과 장수의 문화적 상징체로 자리한 이야기이다. 앞의 제주 서복 민요도 이를 증명한다. 앞서 말한 것과 동일하게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화두로 최대 난제이며 최고 어려운 수수께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신선사상에서 나온 불사설화-서귀포, 남해, 함양, 거제, 통영, 동래 등 분포-의 일반적 원리이며 환상문학의 모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서복의 문화유전자는 매력적이다. 서복의 환상여행 화소는 대중의 지적 호기심과 불로초에 대한 인간의 본성과 욕망에 기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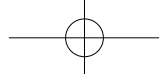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서복전승에는 장수와 건강의 힐링코드가 있다. 제주신화에 보이는 당신(堂神)들의 치유, 무병, 풍요, 생명 등의 기능에 대한 관련성-아직 서복(불로초, 약초 신선신화 등)과 제주신화 연관성은 연구된 바 없다-을 서복의 도래와 이주 요소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신선사유가 후대에 많은 신화형 환상문학과 제주인의 삶 자체에 큰 영향을 끼쳤음에 분명한데 이른바 모험여행담의 원형이 된 점이다. <바리공주>, <심청가>의 노정기 구술적 요소도 내재되어 있다. 서복전설의 탐색적 교류성은 동아시아의 오래된 지혜라고 할 수 있다.

팩션형 시놉시스

-키워드: 불로초, 선약

-인물: 진시황, 서복, 이사, 달보 7인, 고미할망, 버미하르방, 이자나미, 야마온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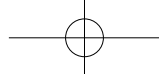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기획전략: 서복이야기의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진정성은 다른



비즈니스 간의 네트워크 연결과 상품화의 창조 방향에 달려 있다. 서북이야기의 원형에는 불로초의 생명성이 있다. 불로초의 장수와 영혼 불멸의 사유관념은 동아시아적 신비주의 영성이 자리하고 있다. 내재적 의미로 평화와 생명에 대한 동아시아적 호혜성과 상생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장수학의 원형질을 함축한다. 이를 통해 서북의 수용과 창출로 동아시아의 생명원천과 평화 메시지에 대한 공감대를 실행하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서북은 오래된 미래서사라 할 수 있다.

-개요(일부/한반도)

고대 주변을 통합한 시황제는 황제로 등극하자 천하는 독차지하게 되었다. 무소불위의 황제는 의심하는 생각으로 만 리나 되는 장성을 쌓고 아울러 많은 궁궐을 지어 수 천 궁녀들을 데리고 살면서도 절실한 욕망이 있었다. 주지욕립에 살다 보니 힘이 부치는 것을 느껴 몸이 늙음을 알게 되고, 죽음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시황제는 점차 폭군형 황제로 변하였다. 어느 날 신하들을 모아놓고 “동해에 신선이 산다는 곳이 있다는데 구해오도록 하라” 명하였으나 어느 신하 한사람 나서는 자가 없었다. 그러던 중 서북이 황제에 주청하여 “동해에 있는 삼신산에는 신선이 살고 불로초가 있다 하오니, 바치겠습니다.”고 장담하였다. 진시황은 매우 기뻐하여 승락하고 서북의 요구를 들어주고 불로초를 캐오도록 명하였다. 서북은 BC 210년 진시황이 시킨 대로 서북은 곤륜산의 오래 묵은 목재들을 베어 큰 배 60척을 만들어 배에 5000명의 각 분야의 뛰어난 백공(百工), 3000명의 동남동녀와 함께 3년 치 식량을 준비하여 진황도를 출항하였다. 금은보화와 식량을 넉넉하게 실어 배를 띄웠다. 그들은 서해 백령도, 남해에도 정박하였다. 망망대해에서 거친 파도와 고래떼, 추격대, 원주민과 싸우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은 항해 끝에 마침내 영주 땅 금당포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아침 해가 솟아오르자 서북은 바닷가 큰 바위 아래서 제사를 지내고, 무사히 영주 땅에 도착할 수 있게 도와준 하늘에 감사드렸다. 큰 바위에 ‘조천(朝天)’이라는 글을 새겨 놓았다. 이 바위를 ‘조천석(朝天石)’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때부터 조천이라는 마을 이름과 배가 정박했다 하여 조천포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다. 서북은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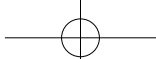
로초 탐색하기 위해 탐라 한라산을 올랐다. 동남동녀 오백 명-설문대 할망신화 연관<sup>46</sup>-을 풀어 아흔아홉 골짜기를 헤매고 한라에 오르니 하얀 운무가 내려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한라산의 신선과 백룡이 노니는 것 같아 다가가자 어디론가 사라져 자취는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 이상한 영초가 있어 그 지초를 캐고 산을 내려오는데 어디선가 옥금 소리가 들리는 듯하였다. 옥금 소리의 행방을 알지 못한 채 그가 내려온 곳이 산남의 정방폭포였다. 서복은 웅장한 폭포가 절벽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경관을 보고 “중국의 무릉원경도 이만 못하지 않은가”하고 그 아름다운 장관에 찬탄하였다. 폭포 암벽에 ‘서불과지’라는 글을 새겨 놓고 서복은 이곳의 아름다운 경관에 매료되어 며칠 머문 이후 동남동녀와 백공들을 거느리고, 서쪽 포구에서 배를 타고 영주 탐라섬을 떠났다. 그때 서복은 ‘서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짓말도 남기고 떠났다 하여 ‘서귀포’라는 지명이 생겨나게 되었다. (<서귀포 지명전설>참고) 서복 일행은 추격대를 따돌리면서 한반도의 서해안과 남해안을 거쳐 일본에 도착하였다. 일본 구주는 평원광택(平原廣澤)의 땅에 기후가 따뜻하고 풍광이 수려하며 원주민이 착해 그곳에 머물러 왕이 되어 돌아가지 않았다(徐福得平原廣澤 止王不來). 서복 공동체 일행(참모 7인 포함)은 천문, 유학, 의학 관련 서적도 가지고 왔다.

서복동도행은 탐색모험담인 셈이다. 서복 스토리텔링은 동아시아 ‘새 공동체’, ‘공동의 집’<sup>47</sup> 만들기의 길을 열 수 있다. 장수 트렌드의 과학성과 교류담론의 문화성의 상생으로 동아시아가 문화적 동질성을 가질 수 있다. 서복전설의 바이오공학과 장수학을 접목하여 불치병을 치유하고 장생하려는 웰빙화와 제주도 생태적 유기농 농산물과 연계하여 불로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안<sup>48</sup>

46 이창식, 「설문대할망설화의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콘텐츠」, 『온지논총』 21, 온지학회, 2011, 11-23면.

47 와다 하루키, 이원덕 역, 『동북아 공동의 집』, 일조각, 2005, 272-283면.

48 「서귀포신문」(2015. 8. 17.), 「제주매일」(2015. 7. 30.) 참조. 서복의 역사적 개연성, 건강과 장수 테마를 강화해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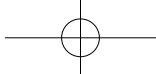


이 있다. 첨단기술의 효과적인 체계지원을 통한 지역특산물의 문화상품화를 이끌어내고 서북브랜드를 통해 서북전승의 지적자원의 활성화를 할 수 있다. 또 불로초의 이미지를 통해 장수학과 지상낙원화를 불러일으키며 인간 욕구의 원천으로 인식되는 융합형 문화상품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한중일에 전시관을 만들었다. 정방폭포 인근 서북전시관에서는 서북과 관련된 설화와 관련된 전시품을 살려냈다. 서북전시관은 크게 서북 전시실과 서귀포시 역사관으로 나뉜다. 서북전시실은 '불로불사의 꿈'과 '서북의 여정', 진시황제의 청동마차와 병마 용갱(兵馬俑坑)의 실물 복제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서귀포시 역사관은 서귀포시의 연혁과 문화 유적지, 관광 문화 홍보물이 전시되어 있다.<sup>49</sup> 전시관 안에서는 서귀포와 서북이라는 영상 애니메이션이 상영되고 있다. 서북전시관 야외공연장에서 서북과지 올레음악공연도 있었다. 동선과 체험프로그램 등이 부족하지만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길을 나선 서북과 서북전시관 주변 풍경을 스토리텔링화하고 이를 서북10경으로 개발하였다. 1경 서북과지(徐市過之), 2경 서귀기원(西歸起原), 3경과 4경 장군수복(將軍壽福), 5경 승진대로(昇進大路), 6경 용왕해송(龍王海松), 7경 해파낙청(海波樂聽), 8경 일등천경(一等天景), 9경 황근만화(黃槿滿花), 10경 장자족구(莊子足灸)이 그것이다. 승진대로는 시진핑 스토리텔링마케팅 효과도 있다. 정방폭포 장소성에 의존한 스토리텔링 적용이다.

중국은 출항지 공원과 영화 '진용'(1989년, 정소동 감독)이 있다. 진용은 장예모(몽천방), 공리(동아) 주연으로 불로초원정대 리브스토리인 셈이다. 중국의 애니메이션 '진시명월(秦時明月)' 중에 서북도 있다. '진시명월'은 중국의 첫 3D 무술 애니메이션의 대작인데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부로 총 100편을 방영하였다. 일본은 구슈 곳곳에 서북관이 있고 장수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시가현서북회, 야메서북회, 가나카와서북회 등 전승단체도 있다. 서북은 오랜 세월 한중일의 인구에 회자되었다. 중일 서북기록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49 오끼나와민속관, 항주 송성민속촌, 제주돌문화공원, 생각하는나무정원 사례 등과 비교된다.



중국 산둥성 방사 역사성, 한국 불로초 신선의 전설성, 일본 평원광택 왕의 신화성 등으로 연결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서북문화콘텐츠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생명형 융합문화산업이다. 한중일 공동으로 관광자원부터 첨단문화 산업까지 활용 협력 범위가 광범위하다. 서북 활용의 대표 화두도 원형의 융합 연구 못지 않게 자원인 원형의 멀티유즈(OSMU)가 요청된다.<sup>50</sup> 서북의 스토리텔링 핵심 매력을 통해 한류형 감동 위주 문화상품의 호환성과 형상성 그리고 전략적 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sup>51</sup> 인문학형 관광문화 활성화를 통한 한류문화의 공동집 구축 가능성을 드러낸다. 서북전시관의 스토리텔링 재구성과 한중일 서북관에 대한 비판적 재인식이 필요하다. 서북 스토리텔링의 상품화는 장수와 행복의 가치창조를 통해 동아시아적 연대감을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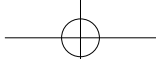
서북스토리텔링은 빅킬러콘텐츠 구실을 하도록 연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앞서 제시한 시놉시스를 바탕으로 한 서북실경뮤지컬, 오페라 창작(한·중·일 언어로 공연)은 마당놀이형 홀로그램 형태가 구축되어야 한다. 서북아이콘은 미래지향의 호환성이 있어야 지속가능성의 창출이 가능하다. 서북선단의 불로초 찾기 게임, 애니메이션도 창작해야 한다. 서북축제<sup>52</sup>도 구비적 장소성을 중심으로 하여 한중일 순회하도록 기획해야 한다. 융복합 크루즈체험상품(의료, 뷰티, 치유, 공연 등)을 생산하고 한중일 명품 장수의약의 불로초 스토리마케팅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본풀이의 제주신화자원, 신선바둑놀이와 연계하여 향후 서북 장소성을 공동 정리하여 한중일 인류복합문화유산으로 등재도 준비해야 한다.

장수문화 관련 자원화, 서북킬러콘텐츠 상품화, 서북동아시아문화체험 네트워크화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초 동아시아 공동 공연영

50 이창식, 『인문학적 상상력과 융합콘텐츠』, 글누림, 2015, 71-76면.

51 이윤선, 「문화원형과 문화콘텐츠 트렌드」, 『문학콘텐츠기획론』, 민속원, 2006, 15-66면.

52 안이영노·김광욱, 「입으로 새기는 현대적 축제-구비문학과 지역축제의 상생을 위하여」, 한국구비문화학회 『현대 사회와 구비문학』, 박이정, 2005, 33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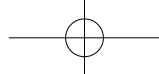


상품 제작을 제안한다. 동아시아 서북콘텐츠 공유는 동아시아의 행복한 공동 집, 유라시아 공동체 미래를 구축하는 데 시사하는 바 크다. 오래된 미래 이미지 서북은 이천년 동안 우리 가까이에 있었던 까닭이기도 하다. 서북스토리텔링은 한중일 공동 화합과 화해의 연대감 형성에 기초로도 작용될 것이다. 다양한 서북문화콘텐츠 작업을 통해 동아시아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야 할 것이다. 한중일 문화원형사업은 생명·재미라는 이야기형, 예술형 소재의 상상·감동이라는 놀이형, 경관생태형 소재의 역동·몰입이라는 카테고리에 기반한다. 스토리텔링 핵심 가치는 세 나라가 공히 장수/건강/힐링, 환상/동경/이상, 교감/소통/창의의 유전자로 각인된 점이다.

서북스토리텔링 실제 추진은 의료, 뷰티, 치유 등 장수브랜드와 맞물려 수행해야 한다. 서북 킬러콘텐츠에 부합하는 연계사업이 동시다발로 개발되어야 한다. 서북의 캐릭터, 서북 서사에 대한 스토리텔링 창작, 한중일 관련 문화콘텐츠산업 등을 위해 앞의 구비적 장소성, 해양신<sup>53</sup>과 불로초 탐색로에 대한 가치가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동아시아 서북원형사업은 이야기형과 예술형 소재의 상상·감동, 놀이형과 경관생태형 소재의 역동·몰입이라는 카테고리에 기반한다.<sup>54</sup> 결국 이러한 유전자요소가 스토리텔링의 기법으로 한중일 연계 시놉시스 스토리텔링의 킬러콘텐츠 제작을 통해 MSMU로 극대화해야 한다.

53 《오늘이》 - 이성강 감독 (애니메이션), 원천강본풀이(제주도 무속신화), 『해리포터』 시리즈 - 신화적 상상력,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 미야자키 하야오, 장보고 중심 영상 콘텐츠에서 임경업 등 현실적인 인물 위주의 역사콘텐츠 제작 필요, 장보고 - 해신 드라마, 수로부인 -해가 공원, 최영 -왕건 드라마, 임경업 -임경업장군굿, 이사부 -동해(독도) 영웅, 심청 -심청축제, 선묘 -부석사, 도깨비 -속리산, 도깨비캐릭터, 개양할미 - 칠산바다 조기신과 임경업, 연오랑세오녀 - 포항 일월신화, 경주 문무대왕, 울산 처용-호국룡.

54 유라시아 인문강좌 수행(세명대, 유라시아재단, 2021).



#### 4. 맺음말

이 글은 스토리텔러의 기법을 고려하여 서복담론에 대하여 역사적 개연성 속에 오래 묵은 지혜의 국면을 읽고 새로운 실제 서사작품을 생성하는 탐구의 의도로 출발하였다. 서복로드는 해양실크로드 이상의 문화교류적 가치가 있다. 서복의 내재적 가치는 환상, 장수, 치유에 있다. 특히 서복 불로초 장수-건강 키워드는 예전이나 지금 여기나 두루 상통하는데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론에 일차적으로 부합한다. 서복전승의 서사요소-인물, 움직임, 시공, 흥미-를 맥락화 하여 스토리텔링 가능성을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서복전승은 한중일 마인드마크로 새롭게 보여줄 신화적 전형(典型)이다. 서복의 신화성을 가치창조의 영역 곧 서복 OSMU 전략을 확대해야 한다. 논쟁의 갈등 여지에서 동아시아 소통과 화해의 열쇠로 활용하자는 시각이다. 이 시놉시스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최초 공동 실경뮤지컬을 제안하며 서복의 무대공연화에 집중하여 개발의 여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서복 스토리텔링 창작 기획에 집중하여 살폈다. 무엇보다 공연의 경쟁력(K-퍼포먼스)을 끌어올려야 한다. 실경뮤지컬(중국형)과 서복홀로그램(일본형) 개발은 시의성이 있다.

기존 ‘태양의 서커스’, 장예모의 ‘인상프로젝트’ 공연에서 팩션형 스토리텔링 공연물은 보듯이 재미성, 진정성, 예술성을 담보해야 동아시아 매력적인 상품이 된다. 처음으로 짜본 한중일 서복 시놉시스 스토리텔링은 한류형 K-퍼포먼스 만들기에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고 실행성이 있다. 서복은 동아시아의 다면적 성격을 보여주는 오래된 미래인물로서 아시아적 트렌드이다. 서복스토리텔링팀(가칭, 실효성) 형태의 동아시아 OSMU 스토리텔링 포럼과 문화유산 피칭워크숍과 같은 문화공동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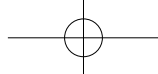
### ■ 단행본

- 이창식, 『인문학적 상상력과 융합콘텐츠』, 글누림, 2015, 71-76면.  
임석재, 『임석재전집10-한국구전설화경상남도편1』, 평민사, 1996, 48-49면.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1997, 34면.  
최시한, 『스토리텔링 어떻게 할 것인가』, 문학과지성사, 2015, 34-45면.  
현용준 외, 『제주도전설지』, 제주도, 1985, 104-105면.  
홍순만, 『서북집단과 제주도』, 제주문화원, 2002, 56-297면.

### ■ 논문

- 곡동량, 「서북정서: 환황해권 해양사회의 문화유전요소와 족군 연계매개에 대한 연구」, 『제주도연구』 21집, 제주학회, 2002, 73-88면.  
김영동, 『한국구비문학대계』 9-2, 한국학중앙연구원, 486-489면.  
미즈노 아키라, 「일본에서의 서북에 관한 전승과 신앙」, 『제주도연구』 21집, 제주학회, 2002, 313-318면.  
안이영노·김광욱, 「입으로 새기는 현대적 축제-구비문학과 지역축제의 상생을 위하여-」, 한국구비문학회편, 『현대 사회와 구비문학』, 박이정, 2005, 331면.  
이윤선, 『도서·해양민속과 문화콘텐츠』, 민속원, 2006, 55면.  
이윤선, 「한국 서북전설의 현황과 관광자원화 방향」, 『도서문화』 30집, 도서문화연구회, 2007, 153면.  
이창식, 「서불설화의 동아시아적 성격」, 『어문학』 88집, 한국어문학회, 2005, 231-252면.  
이창식, 「서불전승의 정체성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동아시아고대학』 12호, 동아시아고대학회, 2005, 53-90면.

접수일: 2021.12.9. 총평일: 2021.12.29. 게재확정: 2021.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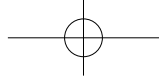
[ABSTRACT]

Figure Seobok(徐福) Contents in East Asia and Storytelling

Lee ChangSik(Professor of Semyung University)

The principle of storytelling could be indicated from traditional story narration that has been widely spread and done in traditional society of China, Japan and Korea. The story of Seobok(徐福)/ Seobul(徐市) is taken to examine as the ancient figure appeared in the oral narrative. Humbly speaking, given East Asia is moved by and passionate with mutually common aspect, the sentiment seems to be similar. In this respect, the talking point, Seobok could be faction type oral heritage of Korea, China and Japan. Existing writing named Seobul but considering commonality of the pronunciation with Seobok-guan(Xu Fu Guan), this research uses Seobok(徐福). Seobok itself expresses mystique of ancient exchanges along with the widely renowned longevity and elixir plant (herb of eternal youth) inheritance: his whereabouts and footsteps are explained in the literature while being covered by mysteriousness of the immortal of Taoism but the true substance is not confirmed in detail. At that time, China,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Islands had an attractive spatiality.

The research highlighted the logic that for storytelling creation on the character of Seobok and related narrative as well as cultural contents industry regarding Korea, China and Japan, the value of oral spatiality and marine exploration route on longevity should be analyzed thoroughly. Either at the level of regional culture or marine culture, the existence of the



god of the sea could be utilized at a various forms. The marine archetype of mythology project is based on the category of story type, art type with materials like imagination/emotion and play and landscape/ecology type with dynamics and immersion. This thesis intensively covers the aspect of identity and exchanges through Seobok.

**Key words:** Seobok, Seobok-guan, elixir plant, oral narrative, storytelling